

영화카메라의 탄생, 영화의 역사가 되다

동명동에 '세계카메라영화박물관' 최초 촬영기 '카메라 옵스큐라' 등 카메라·영화기기 6800여점 전시

"심마니들도 도라지, 장뇌삼, 산삼을 발견할 때 기분이 모두 다르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여행시절이나 카메라샵에서 오래된 카메라를 발견할 때면 각기 다른 심정이 떠오릅니다. 30년간 찾아 헤매다 작년에 겨우 수집한 '원색분해용 RGB 3색 카메라'를 발견했을 때는 이렇게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심됐다'"

오전 11시에 방문한 동명동(동계로 5) '세계 카메라영화 박물관(관장 이수환, 이하 박물관)'에는 고즈넉한 분위기가 가득했다. 세계 방방곡곡에서 이 관장이 직접 수집한 카메라 1800여 점과 환등기, 영상 카메라 등 영화기기 5000여 점이 놓여 있었다. 40평 남짓한 전시공간은 크지 않더라도 내실 있었다.

입구에 놓인 인류사 최초의 촬영기기 '카메라 옵스큐라'가 먼저 눈길을 끌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5세기경 만든 이 기기는 빛이 투과하는 면에 기름 종이를 두고 상을 따라 그리는 방식이다. 직접 구할 수 없는 탓에 이 관장은 목공기술을 익혀 실제로 작동하는 카메라 옵스큐라를 제작·전시하고 있다.

박물관에서는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인 '카메라 루시다'도 만나볼 수 있었다. 프리즘을 조작하며 육안으로 보이는 이미지를 따라 그리는 방식이며, 원리는 앞선 카메라 옵스큐라와 유사하지만 이동식 기능까지 갖췄다.

최초의 카메라 셔터 촬영체험 및 고전적 형태의 플래시 체험은 아이들도 재밌어할 것으로 보였다. '기요틴(단두대)'이라 불리는 최초의 카메라 셔터는 단두대 날처럼 차단막을 아래로 떨어뜨리며 작동했다. 물리적으로 빛의 노출량을 조절하는 것. 또 카메라 플래시는 마그네슘에서 스파크가 될 때 빛을 반사해 조

세계적으로 10여대 정도 남아있다는 '원색분해용 RGB 3색 카메라' 스페셜 모델. 박물관은 그중 두 대를 보유중이다.



기요틴 방식으로 작동하는 과거의 카메라 셔터를 설명하는 이수환 세계 카메라영화 박물관장.

도를 높이는 원리로 만들어졌으며 반짝 하는 불꽃이 튀었다. 이외에도 박물관에서는 여전히 작동하는 카메라 관련 기기들을 직접 조작해볼 수 있었다.

이 관장은 "카메라 기술은 돌고 돈다"며 "현대식 카메라와 사진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SD카드를 인식하는 기기가 변하거나 마그네틱 등이 부식되면 현대식 기기들도 얼마든지 역사의 뒤궤로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신비로운 카메라공학 기술의 원리를 만나볼 수 있었다. 넓은 조경을 한 장의 사진에 담아내는 스마트폰의 '파노라마' 기능은 최신 기술이라 생각되지만 태엽을 감아 렌즈를 회전시키는 원리로 일찍이 구현됐다. 현대식 산물이라 오해받는 3D사진도 유구한 역사를 갖는다. 여러 색의 레이어를 혼합해 촬영하는 입체사진, 매직아이 사진, 홀로그램 등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등장했던 기술인 것.

전시물들의 수집 경로를 묻는 질문에 이 관장은 "해외여행을 나갈 때마다 벼룩시장, 카메라샵 등을 서성인다"며 "요즘엔 사이트도 잘 구축이 되어 있고 카메라만을 전문적으로 알선해주는 루트도 있다"고 답했다.

한편 에피소드가 담긴 전시물들은 관람의 재미를 더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카메라로 평가받는 '라이카 스페셜 18k 황금 모델'은 박물관

관의 자랑. 독일에서 1958년 소량만 제작했다는 황금 카메라의 금액을 묻자 이 관장은 "박물관의 1급 기밀"이라며 "막대한 자금을 쏟느라 바꾸려던 차를 못 바꿨다"는 후문을 남겼다.

이외에도 1930년대 스파이들이 사용했던 초소형 카메라 'MINOX'부터 영화학도를 꿈꾸는 이들에게 공부가 될 영화 전시공간까지 마련돼 볼거리가 다양했다. 8mm 초소형 영화용 필름이나 음성을 녹음하는 고화질 극장영화용 70mm 필름이 사이즈별로 전시돼 있었으며, 필름을 연결하는 스플라이서나 영화 편집기, 각종 영화 포스터도 볼 수 있어 눈이 즐거웠다.

이 관장은 "원래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해 사진을 자주 찍다 보니 카메라가 고장 나는 경우가 많았다"며 "기기를 바꿔가며 촬영하면서 구조, 디자인 등에 빠지게 돼 지금까지 30년간 수집해 왔다"고 수집 계기를 말했다. 이어 "궁동에서 별도의 예술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얻은 수익을 거의 다 쏟아부을 정도로 박물관에 열정을 가져왔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물관에 커릴 단위로도 많이 방문한다"며 "진부하고 낡은 골동품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방문객 대부분이 새롭고 신선하다고 이야기한다. 작동되는 카메라들이 많아 '살아있는 박물관'을 방불케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취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박진연의 문화카페

"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 청라언덕 위에 백합 필 적에/나는 흰 나리꽃 향내 맡으며 너를 위해 노래, 노래 부른다..."(이은상 작사·박태준 작곡 '동무생각' 중)

한낮의 온도가 30℃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도 대구 중구 근대문화골목(근대골목)의 청라언덕은 관광객들로 북적인다. 청라언덕을 시작으로 대구의 구도심에 자리한 유적지를 둘러 보는 근대골목투어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올해로 문화체육부가

대구에 중구가 있다면 광주에는 동구가 있다. 이들 기초자치단체는 도심 공동화를 겪었다는 공통점을 지녔다. 하지만 관광지 형에서의 위상은 차이가 크다. 중구가 근대골목투어를 통해 대구 관광의 핵으로 자리잡았다면 동구는 곳곳에 숨쉬고 있는 오래된 공간과 흥미로운 스토리를 '워어내지 못해' 차별화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광주 동구가 5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동구문화관광재단(이하 관광재단)을 출범시켰다. '체류형 문화관광도시'를 내건 관광재단은 충장축제, 글로벌 브랜드로 키우는 등 관내의 문화유적지와 스토리텔링을 통해 관광1번지로 비상한다 는 비전을 선포했다.

동구관광재단에 거는 기대

로 부상했다.

근대골목투어는 대구 도심 주변의 1000여 개 골목에 스며있는 1000여 개의 이야기를 발굴해 5개의 코스로 엮어낸 도시재생 프로젝트다. 오랫동안 방치된 도심의 근대문화유산을 찾아내 보존하고 이야기를 덧입혀 되살렸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죽어가는 도심이지만 지역의 시민운동가들이 의기투합해 꼬불꼬불한 골목길에 숨은 역사를 끄집어 내 세상에 내놓은 것이다.

이들의 열정에 날개를 달아준 것은 '행정'이었다. 지역 청년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에 귀를 기울인 대구 중구청은 5개 코스의 근대골목 투어를 발굴하고 문화예술과에 골목해설사들을 배치해 관광객들에게 들려준 것이다. 한때 쇠락했던 대구의 도심이 관광지로 화려하게 변신한 데에는 중구와 시민 운동가들의 활로가 있었던 것이다.

사실, 동구는 잠재력이 풍부한 '살아있는 문화유산의 보고'라 다름없다. '어머니의 꿈'으로 불리는 무등산에서부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금남로, 충장로, 광주-전남 최초의 근대학교인 서석초등학교, 8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광주극장, 40년의 세월을 품고있는 음악감상실 베토벤 등 사연 많은 공간들이 즐비하다.

코로나19 이후 관광트렌드는 소확행의 가치를 일깨우는 로컬여행으로 '진화'하고 있다. 바쁜 도시생활에서 벗어나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 명승지 보다는 세월의 무게가 쌓인 레트로(Retro)공간 탐방을 통해 그 지역의 속살을 깊이 들여다 보는 관광이 대세가 됐다. 그런 점에서 지역관광의 부흥을 내건 관광재단은 광주 관광의 미래를 꿈꿀 수 있어 반갑다. 이제 진정한 여행은 지역의 숨은 보석들을 찾아내는 디테일에 있다.

<문화·여행국장, 선임기자>

멈추지 않고 흐르는 것은 조금씩 깊어간다. 그러다가 결국 바다처럼 넓어질 것이다.

전남도립국악단(예술감독 류형선, 이하 국악단)은 무용 특집 '흐르다 깊어지다 넓어지다'를 29일 오후 4시 남도소리올림픽 공연장에서 연다.

'시간의 무당'이라는 가상의 무희가 악무(樂舞)로 자연물을 일깨운다는 이색적인 내용으로 전개되는 이번 공연은 국악단의 예술철학과 신명나는 춤사위의 조화를 기대해볼 수 있다.

무당은 무대에 올라 만바다에 피어있는 '이야기꽃'들을 소리로 흔든다. 시간의 화집 속에 담겨 있던 춤과 노래는 하나씩 무대 위에서 펼쳐진다. 마지막은 펼쳐진 푸른 산을 보며 아름다운 미래까지 축원하게 된다는 내용.

'해원: 위무의 장'이라는 제목으로 먼 바다와 같은 사람들의 신비한 이야기를 무용으로 재해석할 예정이다. 익히 알려진 고려가요 '가시리'를 최덕렬 편곡가와 김유미 안무가가 '가시리 어미의 춤'이라는 제목으로 재탄생시킬 예정이다. 현대적으로 승화되는 이별의 정한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에 감상의 묘미가 있다.

이어 '수류화개(水流花開)'라는 주제로 자연을 형용하는 춤을 만나볼 수 있다. 진유림 원작의 '입춤소고'가 그중 하나인데, 물이 흐르는 계절이 되면 얼어



지난해 정기공연을 진행하는 모습.

<전남도립국악단 제공>

붙은 강이 녹고 꽃망울이 다시 오르는 자연의 이치를 무용으로 그린다. 여기에 입춤소고가 갖는 특유의 '즉흥성'이 어우러져 공연의 즐거움을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한량무'도 감상할 수 있다. 의기롭고 호협한 사나이를 칭하는 옛말 '한량'을 소재로 호방한 춤선을 그려내는 공연은 관객들의 기대를 모은다. 고매

한 절개를 지키는 백매(白梅)의 정신을 문남철 안무가가 형상화할 것으로 보인다.

유려한 산흥(山興)의 모습도 '설장구춤'을 통해 관객들에게 형상화된다. 장구쟁이가 나와 놀음을 펼치는 장구춤에서 자연의 비유적 모습과 풍물의 흥을 느낄 수도 있다. 전석 무료. 티켓링크에서 예매.

/취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도슨트 8명 최종 선발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기간 관람객들에게 전시작품을 설명하는 전시해설사인 도슨트 최종 합격자 명단이 발표했다.

광주디자인진흥원(원장 송진희)은 오는 9월 7일 개막하는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도슨트 최종 합격자 8명을 발표했다. 25일 밝혔다.

이번 도슨트 공모에는 28명이 접수했으며 서류 및 면접 전형을 거쳐 8명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합격자들은 전원 도슨트 관련 경력자로 이 가운데 5명은 광주디자인비엔날레와 광주비엔날레 도슨트로 활동하기도 했다.

특히 박 모씨(47·여)는 제8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부터 3회 연속 도슨트로 선발됐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 3회, 광주비엔날레 3회 활동경력을 보유한 신 모씨(61·여)는 이번 합격으로 7번째 도슨트로 활동하게 됐다. 신 씨는 "광주에서 열리는 국제 행사인 만큼 자부심을 갖고 디자인비엔날레를 소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폐막한 광주비엔날레에 이어 디자인비엔날레에서 인연을 이어가는 사례도 4명이나 됐다. 아울러 비엔날레와 디자인비엔날레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도슨트 활동 장면.

<광주디자인진흥원 제공>

를 관람하며 예술대에 진학했다는 '비엔날레 키즈',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영어 통역 경험에 있는 통역원, 고교에서 디자인과목을 가르쳤던 교사 등 다양한 이력의 보유자도 눈에 띄었다.

최종 합격자들은 오는 8월 7일부터 31일까지 기초교육, 심화교육, 현장학습 등을 거쳐 9월 7일부터 도슨트로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